

TV 드라마에 재현된 여성노인의 삶 연구*

- 성공적 노화와 주체성의 관점에서 -

이소희**

「차례」

1. 서론
2.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3. 『엄마가 빨났다』(2008): 미완으로 끝난 주체성 찾기
4. 『찬란한 유산』(2009): 자기초월감과 주체성에 기반한 성공적 노화
5. 『내 사랑 내 곁에』(2011): 주체성 없는 성공적 노화
6. 『무자식 상팔자』(2012): 다양한 주체성에 기반한 성공적 노화
7. 결론: 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와 주체성

〈국문초록〉

현재 우리 사회의 여성노인은 남성보다 7년여 긴 수명과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또 빠르게 진행되는 유교적 가치관의 붕괴와 핵가족화 등으로 자신의 삶을 독립적으로, 주체적으로 영위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본 연구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인 TV에서 익명의 다수 시청자 집단을 겨냥하여 제작하는 드라마에서는 여성노인들을 “성공적 노화”와 “주체성”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떻게 재현하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이 때 “성공적 노화” 개념은 한국에서 진행된 실증적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경제적 안정감”과 “자녀와의 원만한 관계”를 모두 포함한다. TV 드라마는 매체의 특성상 시청자들의 요구에 따라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1-32A-B00109).

** 한양여대 영어과 교수

해방적 메시지를 보여줄 필요를 느끼지만 동시에 지배문화와 이데올로기를 전달해야 하는 양가적 입장을 모두 포함한다. 그와 더불어 문화적 공론장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사회에서 여성노인의 삶에 관한 사회구성원들의 인식과 가치관을 읽어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2008년 이후 주말 프라임 시간대에 방영된 가족드라마 4편, 『엄마가 뽀뽀했다』(2008), 『찬란한 유산』(2009), 『내 사랑 내 곁에』(2011), 『무자식 상팔자』(2012)를 선정하여 각 드라마에 나타나는 여성노인들의 삶을 “성공적 노화”와 “주체성”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금까지 TV 드라마에 등장한 여성노인들이 부정적 이미지로 재현되어 온 것과는 달리 본 논문에서 분석한 4편의 드라마에서는 점차 적극적이고 활동적이며 주체적인 여성노인 인물들이 등장한다. 그렇다고 주말드라마의 특징인 가족중심 서사전략 틀이 변한 것은 아니며 안정적 서사전략 내에서 약간의 변동적 서사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는 자신의 자궁가족, 특히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며 소소한 일상생활에서 여성노인들이 어떻게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도 미약하게 제시되어있으나 미래지향적 비전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므로 여성노인 개개인의 인식 변화와 함께 젊은 세대들에게 여성노인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으로도 세대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중들에게 가장 친숙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TV 드라마 장르에서 성공적 노화와 주체성을 갖춘 여성노인 등장인물들을 다양하게 제시하는 것이 요청된다.

핵심어: 여성노인, 성공적 노화, 주체성, 고령화 사회, TV 드라마, 서사 전략, 가족, 자녀와의 관계, 자기초월감

1. 서론

최근 발달과 성장의 관점에서 나이 들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노년기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이 형성되고 있다. 인생 후반기에 경험하는 지속적인 성숙과 심리적 발달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 개념과 이 시기에 보다 활동적으로, 또 생산적으로 자신의 노년기 인생을 운영하고자 하는 주체성에 주목하는 논의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2012년 현재 한국인들의 평균수명을 살펴보면 남성 77.95세, 여성 84.64세로 여성이 약 7년가량 더 생존한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도 2010년 11.0%로 이미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하였고 2018년에는 14.3%로 더욱 늘어나 고령사회(aged society)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인의 평균 수명도 2040년에는 89.3세로 연장된다고 보고 있다. 사회문화적으로는 확대가족이 붕괴되어가면서 전통적 의미의 “효” 규범이 약화되고 노인들의 지위가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 가족제도나 공동체 등 노인들에게 자원에 대한 통제권이나 소유권이 유효하게 행사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붕괴되거나 변화되는 양상을 우리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급격히 고령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노년의 지위가 우려될 만큼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남성보다 긴 수명과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또 빠르게 진행되는 유교적 가치관의 붕괴와 핵가족화, 조손 가정 및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는 싫든 좋든 여성노인들로 하여금 노년기에도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영위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 노인들, 그 중에서도 여성노인들은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그리고 대중들에게 가장 친숙한 미디어 장르인 TV 드라마에서는 이들 여성노인들을 “성공적 노화”와 “주체성”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떻게 재현하고 있는가? 바로 이 점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노인의 노화과정을 성공적 측면에서 보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로 1986년 미국의 노년학회가 “성공적 노화”를 연례학술대회 주제로 내걸었

을 때부터 “성공적 노화” 개념이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로우(Rowe)와 칸(Kahn)(1997)은 기존의 ‘정상적 노화’(normal aging)와 ‘병리적 노화’(pathological aging)의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 질병이 없는 정상적 노화인 ‘보통의 노화’(usual aging)와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로 다시 구분하였다. 이 때 제안한 ‘성공적 노화’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3가지 기준, 즉 (1)질병 및 장애로부터 해방, (2)높은 인지 및 신체 기능, (3)사회 및 생산적 활동 참여를 제시하였다. 그들에 의하면 “성공적 노화”란 늙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 늙는 것을 의미한다. 청년기에 미래를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공적인 노년기를 위해서도 미리 노년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여 인생의 후반기 마지막 20-30년을 알차고 기쁘고 건강하게, 또 보람있고 즐겁게 사는 것을 “성공적 노화”로 정의하였다. 다시 말하면 “성공적 노화”는 노인이 과거와 현재를 수용하고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삶의 의미나 목적을 잃지 않고 성숙해가는 심리적 발달과정이며 자녀, 부부, 사회관계도 잘 유지하면서 노년기 삶을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살아감을 의미한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성공적 노화”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많은 실증적 연구 결과에서 한국 사회에서는 자녀관계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2007년 이후 진행된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여러 자료들에서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으나 구체적 상황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도 매우 미흡한 편이다.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 가운데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남성은 배우자를, 여성은 자녀를 더 중시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여성노인이 보다 더 가족중심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성공적 노화를 수치화한 점수에서는 대체적으로 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¹⁾ 또 여성노인들은 노

1) 성(gender)는 현대 사회에서 대표적인 사회 층화요인으로서 성별에 따라 삶의 맥락, 즉 심리적, 사회적, 역사적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며 남녀에게 상이한 조건과 경험을 구성하는 이러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성공적 노화는 확연하게 성별화된

인기에 들어서 통합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며 자신의 삶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하게 되고 예전보다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심리적 조건을 갖추게 된다는 여성학적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도 발표되었다²⁾. 또 전경숙 등은 여성노인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재평가하고 자아통합을 하는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대부분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특히 자녀와 종교가 그들의 삶에 의미있는 요인임을 제시하였다.³⁾ 그러므로 최근 5년 동안 진행된 여성노인에 대한 연구들은 우리가 여성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성을 촉구하게 되었다.

TV 드라마에 재현된 여성노인의 삶을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가 대상으로 하는 60세 이상의 여성노인들은 한국사회의 근대사 후반부를 몸으로 체험한 세대이다. 이들은 대체로 일제 강점기인 1930년대와 1940년대에 태어나 가난과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적인 환경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으며 민감한 사춘기, 청소년 시기에 해방과 6·25 전쟁을 경험하였다. 이후 급격한 사회문화, 경제적 변화를 겪어오면서 자신의 가족과 가정을 지탱해온 경제발전의 주역이다. 그러나 그 활동 영역이 사회라는 공적 영역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공헌과 경험이 사회적으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남성들도 같은 시대를 살아오긴 했지만 남존여비사상이라는 시대적 가치의 영향과 일제강점기, 또 6·25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여성들의 삶에 끼친 영향은 남성들과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현재 우리 사회는 그들의 공로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전경숙, 장민희, 정태연의 연구 『한국 사회 노년 후기 여성의 삶의 재평가와 자아통합』(2013)에 의하면 75세 이상의 노년 후기 여성들이 과거를 돌이켜볼 때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는 것은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 2) 박삼근·박성희·김은경, 『여성노인의 젠더 불평등 경험과 인식 전환에 대한 연구』, 『한국여성학』 24권 4호, 한국여성학회, 2008, 141~174쪽.
- 3) 전경숙·장민희·정태연, 『한국사회 노년 후기 여성의 삶의 재평가와 자아통합』, 『한국노년학』 33권 2호, 한국노년학연구회, 2013, 275~292쪽.

여자이기 때문에, 또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며 “자신의 인생이 없었던 삶에 대한 것”이다(280-281). 그 다음은 “경제력이 없어서 자식들에게 마음껏 해주지 못한 것”이다(283). 그러나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는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이는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과거와 비교했을 때 현재의 먹고 살만한 경제적 상황에 큰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자녀들의 삶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또 현재 자녀와 함께 살거나 좋은 기억에 초점을 맞추며 위안과 만족을 찾고 있었다고 한다. 거의 60여년 남짓 자신의 선택과 무관하게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이데올로기에 맞추며 살아온 이들은 현재 삶의 가장 큰 의미를 자신의 분신인 자녀들에게서 찾고 있다. 심영희의 연구(2013)에서는 이러한 여성노인들이 여전히 가족지향적 분위기 속에서도 미약하나마 개인화⁴⁾ 현상을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들을 “가족 중심 생존 지향형”과 “황혼 및 가정 내 이혼형”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가족 중심 생존 지향형”의 개인화는 서구의 자아중심적 개인주의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고 “황혼 및 가정 내 이혼형”의 개인화는 이와 근접한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관계를 보면 여전히 매우 강한 가족 지향을 보이고 있어 한국 여성노인의 개인화는 서구의 자아중심적 자유주의적 개인화와는 매우 다르다고 결론 맺고 있다(308).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성공적 노화” 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공통적 이해와 가치를 반영하는 TV 드라마에서는 여성노인들을 어떻게 재현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한다.

4) 여기서 말하는 “개인화”(individualization)란 서구의 자아중심적 “개인주의”(individualism)와는 다르다. 개인주의는 개인의 태도나 선호도를 가리키는 반면 개인화는 구조적 변동의 과정, 거시사회학적 현상으로서, 그 결과 개인의 태도에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심영희, 『개인화의 두 유형에 관한 연구: “가족 중심 생존 지향형”과 “황혼 및 가정 내 이혼형”을 중심으로』, 『사회와 이론』 23집, 한국이론사회학회, 2013, 280~281쪽)

2.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최근 한국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2005년 이후 노인과 관련된 연구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노인”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⁵⁾ 또한 현재까지 진행된 여성노인 관련 선행연구들은 여성노인들을 수동적인 연구대상으로 상정하거나 그들의 노년기에 어떤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는가에 대한 연구 등이 있을 뿐이며 여성노인들이 한국 사회의 “여성”으로서 자신들의 노년기 삶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각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연구된 바가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2009년에 발표된 연점숙의 논문 『페미니즘과 노년 차별: 페미니즘 안팎의 타자, 노년 여성』⁶⁾은 서구 페미니즘 이론가들 사이에서 진행되어온 “여성노인의 타자성과 주체성” 논의를 짚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한국 여성학계 내에서는 아직 여성노인의 주체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바가 없는 상태이므로 본 연구가 이러한 논의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05년 발표된 백지은, 최혜경의 『한국 노인들이 기대하는 성공적인 노화의 개념, 유형 및 예측 요인』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들의 성공적 노화 개념은 독립성과 자율을 강조하는 서구적인 가치에서 본 성공적인 노화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노년기에 의지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망이나 부양원이 한국노인의 성공적인 노화에 있어 중요한

5) 일례로 2014년 2월 현재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서 학술지 논문만을 대상으로 “노인”을 검색하면 9,266편의 논문이 검색되는 반면 “여성노인”을 주제로 검색하면 952편의 논문이 검색되어 “여성노인” 관련 논문은 “노인” 관련 논문 편수의 약 10%에 해당한다. 가장 많이 다루어진 연구주제는 신체적 건강이며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연구주제는 여성노인의 경제적 빈곤과 심리적 행복감에 관한 것으로 여성노인들을 사회복지 정책이나 지역사회교육 정책의 대상으로 상정한 후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여 미래의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사용할 수 있는 연구 주제들이 주류를 이룬다.

6) 『영미문화페미니즘』 17권 1호, 한국영미문화페미니즘학회, 2009, 107~129쪽.

부분임을 알 수 있었다”(6)고 말한다.

2006년에 발표된 윤현숙, 유희정의 논문 『가족관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은 유배우자 노인 886명을 대상으로 가족 관계 변인들이 성공적 노화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와 자녀와의 접촉 빈도가 성공적 노화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에게 가족관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2006년까지는 연구주체의 초점이 노인 전체에 맞춰져 있었으며 성별 차이에 따라 그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주체가 세분화하여 확립되지 못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2008년에 발표된 곽삼근, 박성희, 김은경의 연구 『여성노인의 젠더 불평등 경험과 인식 전환에 대한 연구』는 상당수의 여성노인들에게는 노년기가 “일생동안 억압하던 가부장적 장치가 제거되는 보다 자유롭고 의미 있는 시기로 재구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나타나는 시기”로 평가된다고 보고하였다(167-168). 따라서 이 연구는 여성노인에게 나타나는 주체성 양상의 특수성을 설명해주는 근거를 제공한다.

2012년에 발표된 김희경의 연구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 영향 요인』은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것으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남성노인 73명, 여성노인 77명 총 1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생활만족도와 우울, 가족지지와 자기초월감이 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를 52.9% 설명하였다는 점을 밝혀냈다. 본 연구에서 이 선행연구에 주목하는 바는 농촌지역 여성노인의 경우 “자기초월감”이 성공적 노화의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며 여성노인들이 훨씬 폭넓고 다양한 인간관계와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

7) “자기초월감”은 자신의 경계를 넘어서 실존적이고 초월적인 존재를 인식하는 인간의 본질로써 자신 너머와 접촉하려고 하며 이러한 접촉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거나 의미를 만들어 간다. 초월감이 형성된 노인은 일상의 관심에서 벗어나 생의

하고 있음을 설명해준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한국노인들이 기대하는 성공적 노화의 모습은 그들이 놓여있는 상황적, 맥락적 차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성(젠더) 정체성은 매우 중요한 변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TV 드라마에 등장하는 여성인물들의 “성공적 노화”와 “주체성”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미디어 매체의 특성상 영화는 여성 노인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초점을 맞추지만 TV 드라마는 다양한 연령대와 가치관을 지닌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인 사회적 인식과 수용을 담보하고 있는 매체이다. 늘 일상과 함께하는 TV는 사회의 정치, 문화적 특성은 물론이고 이념적인 성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젠더 담론을 생산하는 매우 중요한 장이며 동시에 젠더 이미지를 끊임없이 변주하여 생산 유통하는 장이기도 하다. 특히 여성의 삶을 주 소재로 다루는 대표적 여성장르인 TV 드라마가 제공하는 젠더 담론은 사회구성원들이 각자의 경험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범주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성역할에 따른 사회적 실천의 틀이 되며 더 나아가 우리들의 성(젠더) 정체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TV 드라마는 사회적 인식과 개인의 자아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가장 우선순위에 위치하는 미디어이다. 이 때 TV 드라마가 현실에 미치는 영향은 다차원적이다. 단순한 현실의 반영이나 재현을 넘어 TV 드라마 내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현실이 가지는 의미는 실제 사회와 같등하기도 하고 실제 사회의 가치관이나 현상을 강화하거나 억압하기도 한다. 특히 TV 드라마의 속성상 ‘대가족 복합서사’에서 보여주는 가치관이나 재현하는 현실에 대해서 TV 드라마는 양면적인 성격을 갖는다. 즉 기존의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가치관을 공고히 하며 유지시키는 경향과 그와는 반대로 고정관념과 가치관을 무시하거나 변화를 주도하기도 한다.

실제로 TV 드라마에서 여성노인들의 성공적 노화와 주체성이 동시에

재현된 예를 찾아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 판단 요소 중 관계지향적, 가족지향적 요소는 매우 강하기 때문에 TV 드라마에 재현된 여성노인 중에서 “주체성”이나 “개인화” 주제를 전면에 내세운 TV 드라마는 2008년도에 방영된 김수현 극본의 『엄마가 빨랐다』가 유일한 정도이다. 실제 현실에서 여성으로서의 “주체성”이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주장하여 황혼 이혼을 선택한 여성노인들의 경우 이혼 후 이들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가부장적 억압은 사라지거나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가족 차원에서 지역사회 차원으로 확대, 재생산되어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들의 생애사 연구에 나타난 공통적 주제는 “문화체계로 굳어진 가부장제”와 “편견과 억압속의 분절된 삶”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⁸⁾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여성노인들이 처한 현실적 상황이 이토록 가부장적이고 척박하기 때문에 TV 드라마에 재현된 여성노인들의 성공적 노화와 주체성의 양상이 더욱 호소력을 지닐 수도 있다.

그동안 TV 드라마에 등장하는 “여성노인”을 본격적인 분석 대상으로 선택한 연구논문은 없다. 그러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여성인물을 분석한 홍지아의 연구에서는 여성노인에 대한 주목할 만한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2009년에 발표된 홍지아의 『TV 드라마에 나타난 여성인물 분석 연구』는 2000-2007년까지 방영된 드라마를 장르별로 나누어 총 27편에 등장한 152명의 여성인물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홍지아의 연구는 본 연구방향을 설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해왔던 TV 드라마에 등장하는 여성인물들의 유형을 여성의 몸 담론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본 연구와 밀접한 여성노인들에 관한 연구 결과는 매우 흥미롭다. 이 연구에 의하면 주말드라마 4편에 등장하는 25명의 여성인물 중 “50대 이상의 노인은 3명뿐이며 이들은 모두 경제력이 없는

8) 김소진, 『황혼이혼 여성노인들에 대한 생애사 연구』, 『한국노년학』 29권 3호, 한국노년학연구회, 2009, 1087~1105쪽.

노인이고 일일드라마와 주간드라마의 다른 여성노인과 마찬가지로 코믹한 사투리와 억지스런 행동으로 극의 감초역할을 담당”(135)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여성노인의 이미지가 현재 TV 드라마를 통하여 사회적으로 확산, 수용되고 있는 가장 대중적인 이미지이다. 그러므로 TV 드라마 내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주체적인 여성노인 이미지를 찾아보기 힘들고 여성노인들은 대부분 주변적인 존재로만 그려지기 때문에 그들의 성공적 노화와 주체성을 찾아보기란 정말 드물다. 그러나 결론 부분에서는 “2000년대 이후 비록 소수이긴 하나 나이든 세대의 삶의 고민과 성찰을 다룬 드라마가 등장하고 있음”(140)에 주목하였다.

그렇다면 TV 드라마에서 여성노인들의 주체성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본 연구에서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주말 프라임 시간대에 방영되는 가족드라마 4편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2008년을 기점으로 잡은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우리나라 노인 연구에서 성 정체성에 따라 차별화된 연구발표가 시작된 시점이고 가장 선두에 선 연구로는 2007년에 발표된 정순돌의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관한 인식 비교 연구』가 있다. 뿐만 아니라 2008년 우리 사회에서 TV 드라마에 등장하는 여성노인의 자아 찾기 선언이 무수한 사회문화적 담론을 만들어내고 그동안 TV 드라마 내에서 주변인물로만 등장했던 여성노인이 드라마 내용 전개에서 주인공으로, 또 주체적 인물로 등장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또 2007년까지 TV 드라마에 등장하는 여성인물에 대한 선행연구는 이미 수행되었지만 2008년부터 TV 드라마에 등장하는 여성인물에 대한 연구는 아직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2008년 2월 2일부터 시작한 『엄마가 빨났다』로부터 2013년 3월 17일로 종료된 『무자식 상팔자』까지 약 5년에 걸쳐 방영된 주말 가족드라마들 중에서 아래 세 가지 기준에 의거하여 4편의 드라마를 선정하였다. 첫째, 주말 프라임 시간대에 방영된 TV 드라마들 중에서 “대가족 복합서사”를 주요 서사 전략으로 채택한 드라마, 둘째, TV에서 방영되는 동안 주목할 만한 시청률을 기록했거나 강한 사회적

메시지를 내세워 언론매체의 주목을 받은 드라마, 셋째, 드라마에 등장하는 여성노인이 전체 서사 전개에서 비중있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되 성공적 노화와 주체성의 관점에서 의미있는 변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TV 드라마가 바로 이러한 기준이다. 이러한 기준에 의거하여 분석대상으로 선택한 작품은 「엄마가 빨났다」(2008), 「찬란한 유산」(2009), 「내 사랑 내 곁에」(2011), 「무자식 상팔자」(2012)이다.

3. 「엄마가 빨났다」(2008): 미완으로 끝난 주체성 찾기

2008년 이후 방영된 TV 드라마 중에서 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와 주체성을 본격적으로 다룬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김수현 극본의 「엄마가 빨났다」이다. 김수현 작가의 홈드라마 경향성과 작품성을 모두 잘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⁹⁾ 이 작품은 2008년 2월 2일부터 같은 해 9월 28일까지 주말 프라임 시간대에 방영되었으며 애초에는 총 50회로 기획되었으나 66회까지로 연장 방영되었다. 뿐만 아니라 17주 연속 시청률 1위를 기록하였으며 TNS 미디어 집계로는 최고시청률 42.7%, 평균시청률 28.4%를, 또 AGB 닐슨미디어리서치 집계로는 최고시청률 40.7%, 평균시청률 27.9%를 기록하여 장안의 큰 화제가 된 작품이다. 「엄마가 빨났다」는 “아날로그 세대와 디지털 세대의 패러다임이 공존하는 이 시대의 가족이야기”라는 기획 의도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한 세대로 이루어진 대가족 내에서 진행되는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된다.

집안내 최고 어른인 82세의 나충복(이순재 분)은 중졸 학력이지만 정돈되고 깔끔한 성격으로 권위적인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머느리인 김한자가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아들인 나일석(백일섭 분)은 62세로 철도공무원을 퇴직한 다정하고 따뜻

9) 유진희, 「김수현 홈드라마의 장르문법과 젠더 이데올로기 - <엄마가 빨났다>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11호, 한국콘텐츠학회, 2010, 102~112쪽.

한 아버지이자 효심강한 아들로 그려져 있다. 그와 동갑인 아내 김한자(김혜자 분)는 가난한 집 딸로 여상을 졸업하고 친구의 오빠인 나일석과 결혼하였다. 지난 40여 년 동안 넉넉지않은 시댁에서 시부모 봉양하고 시누와 시동생을 뒷바라지하며 전업주부로 살아온 전통적인 한국의 어머니상이다. 그러나 그녀의 내면 의식은 결코 전통적인 여성의 그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주체적으로 변화를 창조해 나가는 인물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시아버지를 “아버지”로 호칭하면서 딸인 나일석(강부자 분)보다 더 살갑게 보살피면서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형식적 관계를 정서적 관계로 전환한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드라마를 “생애주기에 따른 가족 이슈”의 관점에서 분석한 김선영은 이 드라마의 부모 세대에서 보이는 가장 큰 변화는 부부관계와 엄마이미지의 반격이라고 주장한다. 그 예로 실제 드라마에서 한자의 모습은 부엌에서 일하는 장면이 아닐 때는 안방에서 돋보기를 쓰고 책을 읽는 장면이거나 아니면 책을 읽다가 낮잠 자는 장면으로 묘사되는 반면 나일석은 마누라가 뭐하는지 안방을 자주 들여다보는 장면으로 나오는 점을 꼽고 있다. 이 드라마는 노년기에 접어드는 생애주기에서 젠더 경험이 역전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다(173-174). 이러한 장면들은 일상성을 기초로 한 극사실주의를 표방하는 김수현 드라마의 특징이자 서사 전략 관점에서 보면 두 부부의 젠더 역할과 역학이 어떻게 변화되어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작품이 방영된 2008년 같은 해에 발표된 곽삼근 등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노인의 노년기에는 신체적 건강 상태의 변화, 가정 내 성별 분업의 약화, 삶의 유한성에 대한 자각 등으로 삶에 대한 시각의 전환이 일어나는 시기임을 밝혀내고 있는데 김한자와 나일석의 부부관계가 바로 이러한 단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이 시기 여성노인의 젠더 의식은 성장기와 결혼기에 비하여 스스로의 삶에 대해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가정과 사회 및 직업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성별 이데올로기에서 해방되어 통합적 자아를 구성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고 하는데 이 작품에서 보여지는 김한자의 일상생활은 여성노인 노년기 삶의 바로 이러한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다.¹⁰⁾ 나일석과 김한자는 영수, 영일, 영미 3남매를 낳았으나 극의 도입부에서는 아들인 영일(34, 김정현 분)만 4년 연상의 장미연과 결혼했을 뿐이며 이혼전문 변호사인 큰 딸, 영수(36, 신은경 분)와 막내딸인 영미(28, 이유리 분)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 그러나 극의 전개 과정에서 영수는 이혼남인 변호사 동료와 동거를 거쳐 결혼하고 영미는 박사과정중인 연인을 만나 결혼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조금씩 변화해가는 가족관계와 결혼관을 보여주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김한자의 모습에서 시청자들은 김한자의 내면 역시 기존의 성역할 이데올로기로부터 조금씩 변화해가고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¹¹⁾

본 연구에서 이 드라마를 주목하는 특기사항은 바로 소소한 일상사 속에서 터져 나온 “엄마의 가출”이라는 센세이셔널한 소재이다. 당시 이에 대한 많은 시청자들의 첫 번째 반응은 “근데 왜 집을 나가겠다는 거야?”라는 질문이다. 우리 사회의 보편적 시각에서 보면 주인공인 김한자의 삶은 지금 현재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그만하면 성공한 인생인데 도대체 왜 가출을 감행하겠다는 것이냐는 반문이다. 이러한 반응은 60대에 들어선 전업주부 인생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평가는 한 개인으로서 자신의 인생 보다는 자녀나 가족과의 관계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 외에 가출을 하면서까지 무엇을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다는 것이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임을 보여주며 이는 우리 사회의 여성노인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수연은 이 드라마가 가족드라마가 제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여성주의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한자의 가출”이라는 전업주부에 대한 인식년 문화를 주장하는 이 드라마를 여성정책으로까지 연결하여 전업주부의 연금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
- 10) 작품 후반부에 이루어지는 “김한자의 안식년 가출” 역시 광삼근의 연구에 나타난 여성노인 젠더의식의 특수성과 연결해보면 갑작스런 돌출적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 여성노인의 의식변화에 따른 자연스런 논리적 전개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 11) 변호사인 큰 딸, 영수가 이혼남인 동료변호사와 결혼한 후 그의 딸 소라와 만나가는 과정에서도 영수보다도 한자가 아이와 쉽게 소통해 가는 과정 역시 김한자의 내면 의식이 변화해 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정책 제안까지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드라마가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는 가장 큰 이유는 “중년여성(나이든 여성, 여성노인)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를 초월”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김한자에게 집안 살림은 매우 중요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제시한 점을 꼽고 있다.¹²⁾ 즉 엄마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가 아닌, 이 모든 성역할을 제외한 “김한자” 자신으로서의 인생을 살아보겠다는 것, 과격한 변화가 아니라 1년만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가져보겠다는 소박한 꿈을 실현하겠다는 소망을 가족들에게 요구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사회로서는 가히 충격적이라고 받아들였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데 즉 “직업적, 전문적 역할이 없는 전업주부의 경우, 성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정체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다. 이 의문 자체가 바로 우리 사회에서 여성노인이 수행하고 있는 가사노동에 기초한 성역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김한자의 주장을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읽어내면서 “가부장제의 영원한 옹호자” 김수현 작가의 모성애로 위장했던 노욕이 거침없이 드러났다고 비판한다. 김원은 “팔순의 할아버지가 연애하고 ‘키스’하는 재미에, 육순의 엄마가 자유롭게 혼자 사는 재미에 빠진 세상은 누군가의 ‘세대를 거스르는’ 희생을 요구한다. ‘엄마’는 그래서 자식 세대를 제물로 삼았다. 김수현은 이 나라가 ‘건국 60년’ 세대의 것이니, 그들에게 마음껏 ‘뽀’ 내라고 자극한다”라고 비판한다.¹³⁾ 예상했던 바와 같이 가족의 반응이 가장 큰 걸림돌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으로 보면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시아버지나 남편이 아니라 자식 세대인 아들의 극심한 반대이다. 같은 세대인 남편이나 노인으로서 봉양을 받던 시아버지는 오히려 이해하는 편이나 오히려 자식 세대의 반발이 심한 것이다.

12) 이수연, 『드라마를 통한 여성정책 발견: “엄마가 뽀났다”의 가사노동 가치 찾기』, 『젠더 리뷰』, 2008 겨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51~52쪽.

13) 김원, 『저항권과 행복추구권마저 독점한 ‘엄마’』, 『말』, 2008년 10월, 183쪽.

그 중에서도 시집가서 따로 사는 두 딸 보다 함께 사는 아들의 반대가 더욱 격렬하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과 아내인 며느리가 집안의 가사노동을 부담해야 하는 현실적인 상황 때문이다. 그러므로 며느리가 돈벌러 나갈 테니 시어머니인 한자에게 애를 봐달라고 부탁했을 때 한자가 이를 확실하게 거절하자 그에 대한 아들의 반응은 매우 격렬하다. 그 때 한자가 아들에게 하는 낫두리 독백은 이 드라마 전체를 통틀어 매우 의미심장하다. 즉 “너(영일) 때문에 무자식 상팔자 부러운 날 슬하게 많다고 하면 엄마 자격 없다고 할래?”라고 되묻는다. 이 때 아들은 철저히 “며느리의 남편”으로서만 생각이 머문다.¹⁴⁾ 삼륜차 트럭에 자신의 짐을 싣고 이사 나가는 장면에서 삼륜차 운전기사 옆에 앉은 한자가 처음에는 소리없이 미소를 짓다가 점차 킁킁 소리내어 웃고 결국 나중에는 큰 소리로 활짝 웃는 장면으로 그 회가 엔딩 처리된다. 이 마지막 장면에서 한자의 웃음 변화 과정이 바로 한자가 만끽하는 “자유의 가치”를 시청자들에게 충분히 전해주기에 전혀 손색이 없다. 이 ‘한자의 가출’ 사건이 방영되고 난후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온 대부분의 글들이 김한자를 비난한 반면 한 인간으로서 김한자가 누릴 수 있는 “자유의 가치”에 주목한 글은 단 두 편에 불과하다.¹⁵⁾ 그리고 그 비난자들 중에는 남성들만 아니라 여성들도 있다.

그러나 ‘며느리의 유산기’라는 새로운 가족문제가 등장하자 한자의 가출은 막을 내리고 결국 이 문제는 한자의 귀환으로 해결된다. 다시 말하

14) 최근 “며느리의 남편이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xx 여자”라는 우스개 역시 이러한 자식세대와 어머니세대 사이의 변해가는 모자관계를 보여주는 표현이다.

15) 안보영은 『용기있는 그녀, 김한자』(2008.7.20)라는 글에서 “인간 김한자는 나씨 집안의 부속물이 아니잖아요. 평생을 미련한 소처럼 다른 사람들만 사랑했으면 이제 좀 자기자신을 사랑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젠 김한자의 인생인데”라고 썼다. 또 우명희는 『김한자, 우리네 어머니들의 마음』(2008.7.27)이라는 글에서 “‘꿈’일수 밖에 없는 자유란 걸 행동으로 옮긴 김한자의 용기는 분명히 우리 어머니들의 삶과 동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미쳤거나 말도 안되는 건 아니죠... ‘엄마가 빨랐다’는 여성으로서 어머니로서 가족을 위해 희생만 하는 삶이 아닌 가족과 그리고 나의 삶을 적절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꽤 괜찮은 드라마라고 생각됩니다”라고 썼다.

면 엄마의 귀가로 해결되는 가족문제는 가족 내에서 포괄적 의미의 가사 활동(노동)의 해결을 의미한다. 이 드라마가 시도했던 여성노인의 자아찾기는 가사노동과 가족 내 문제해결이라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쳐 절반의 성공으로 끝났지만 도전 그 자체만으로도 의의있는 사회적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므로 드라마의 결말 부분에서 김한자의 대사, “다음 생에 태어나면 “김한자”라는 내 이름으로 살아보고 싶다”는 메시지는 전업주부의 삶에 대해서 성역할의 벽을 넘어 여성 인권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또 이러한 결말은 앞에서 언급한 전경숙, 장민희, 정태연의 연구결과(2013)와 맞닿아 있다. 자신만의 공간 내에서 자유롭게 책을 읽고 혼자 살아보고 싶다는 김한자의 소원은 노년후기 여성들이 과거를 돌이켜볼 때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는 점, 즉 여자이기 때문에, 또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며 “자신의 인생이 없었던 삶에 대한 것”(280-281)이라는 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엄마가 뿔났다』는 형식적으로는 전통적 가족을 옹호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내용상으로는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 가족관계와 그에 따른 여성노인의 주체성 찾기를 반영하고 있다. 또 이는 세 자녀들의 결혼을 받아들이는 김한자의 태도에서도 우리 사회 여성노인들의 의식이 변화하고 있음과 가족이라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에 따른 시대상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다. 앞에서 인용한 선행연구 결과에서 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는 가족, 특히 자녀와의 관계가 더욱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남성노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길기 때문에 자녀와의 관계가 특히 더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들 내외 가족에 앞서서 자신의 개인적 자아의 욕구에 충신했던 김한자의 “자아찾기”는 심영희의 여성노인 개인화 연구에서 “황혼 및 가정 내 이혼형”의 형태로 분류될 수 있으나 결국 결말에 가서는 가족지향적 특징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리하여 김한자의 성공적 노화를 위한 주체성 찾기는 비록 반쪽 혁명으로 끝났을지라도 매우 의미심장한 “여성주의 문화혁명”으로 평가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여성노인의 주체성 찾기라는 대담한 서사전략을 택

했던 「엄마가 빨랐다」는 관습적 서사전략으로 마감되었다. 이러한 서사 전략 변화 과정에 대해서 유진희는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김수현 작가의 독특한 존재감 및 “관습”과 “관습속의 변형” 두 가지 속성을 한 작품 내에서 동시에 발현할 수 있는 작가로서의 역량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한다(104).

그러나 김수현 작가 자신은 드라마 방영이 중반부로 넘어갈 즈음 한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시청자 반응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다. “안식년이 필요하다”며 집을 나간 김한자의 행동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은 너그럽지 못한 반면 영미의 시어머니인 고은아(장미희 분)의 이기적인 행동에는 오히려 너그럽다는 것이다.¹⁶⁾ 작가는 이를 의식한 듯 딸 영수와 의 대화에서 한자를 통해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토해냈다. “다음 생애에서는 나도 내 이름 석자를 불리면서 살아보고 싶다”는 한자의 마지막 독백은 현재 우리 사회 여성노인들의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종방연에서 김수현 작가는 보다 더 솔직한 심경을 “구사일생”이라는 한마디로 집필을 마친 소감을 표현하면서 “끝나고 나도 기분이 명쾌하지 않다. 뭔가 허탈하고 학대를 당한 느낌이어서 화가나 있다”며 “드라마가 성적표도 좋고 그러면 힘이 남아 하는데 작업이 너무 힘들었다”고 덧붙였다.¹⁷⁾ 우리나라 드라마 작가들 중에서 독보적 존재라고 평가받는 김수현 작가의 이러한 반응은 우리 사회 내에서 여성노인이 한 개인으로서 주체성을 찾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견고하고도 높은 문화적 장벽을 넘어야 하는 것인가를 짐작하게 한다.

16) 실제로 시청자 게시판에는 고은아는 그렇게 태어나 그러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해되는 부분이 있으나 김한자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들도 올라와 있다.

17) 진영주, 「『엄마가 빨랐다』 종방연 “1위 드라마를 했다는 자부심”」, KBS TV 특종, 2008. 9. 22.

4. 「찬란한 유산」(2009): 자기초월감과 주체성에 기반한 성공적 노화

2009년 4월 25일부터 같은 해 7월 26일까지 방영된 소현경 극본의 「찬란한 유산」은 TNS 미디어 집계에 따르면 최고시청률(마지막회인 28회) 47.1%, 평균시청률 31.8%를 기록하면서 당시 우리 사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19세 때 유복자를 가진 채 전쟁에서 남편을 잃고 어린 과부가 된 장숙자 여사(반효정 분)는 자신을 가엾게 여긴 국밥집 아주머니에게서 식당일을 배웠고 그 식당을 물려받아 갖은 고생 끝에 수백여 개의 가맹점을 가진 설렁탕 전문업체 ‘진성식품’을 일궈냈다. 장 여사는 호통만 치는 드센 할머니가 아니라 인간적인 매력도 함께 지닌 여성이다. 개인적으로는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고 아들의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족들의 재산 다툼과 부잣집 손주의 버릇을 고치기 위한 할머니로서의 엄격함도 갖춘 인물로 자신의 자궁가족으로 이루어진 확고한 가모장 세계를 확립하였다. 그러나 아들이 죽고 난 후 기업을 물려받아야 할 손자인 선우환(이승기 분)의 철없는 행동에 실망하여 자신이 일군 기업을 자신의 경영철학을 이어받을 후계자에게 물려줄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던 중 길모퉁이에 쓰러진 자신을 아무 조건없이 보살펴준 고은성(한효주 분)을 눈여겨 보게 된다. 결국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술수를 쓰는 여러 사람들과 부딪혀가는 과정에서 주체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여 이제 자신의 경영 철학을 이해하게 된 손자인 선우 환과 고은성에게 가업을 잇게 한다는 줄거리이다.

장숙자는 그동안 우리나라 TV 드라마에서 거의 볼 수 없을 정도로 희귀한 여성노인 캐릭터이다. 이와 같이 공적 영역에서 자신의 힘으로 큰 기업체를 설립, 운영하면서 그 경제적 권력을 운영하여 가정과 기업을 이끌어가는 막강하고 긍정적인 가모장이 등장하는 드라마는 이제까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유일한 예이다. 고은성(한효주 분)이 독거노인으로 신분을 위장한 장숙자가 사고로 기억상실증에 걸리자 그를 돌보며 “이렇게

할머니를 돌보면 누군가는 3급 지체 장애인인 동생 은우를 돌볼 것 같다'고 말하는 건 작가가 전하고 싶은 이 작품의 메시지를 잘 반영하고 있다. 즉 삶의 방향을 “혼자 잘 살 것인가, 서로 도우면서 행복할 것인가” 중에서 선택하라는 것이다. 고은성은 어린 시절 어머니를 여의었으며 진성식품의 상속자 회장을 구한 인연으로 인정을 받아 설렁탕 체인점에서 일하게 됨과 동시에 유산 상속자가 되며 극 중에서 장회장이 가장 신뢰하는 인물이다. 고은성의 말대로, 『찬란한 유산』은 “한 사람의 생각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그것이 개인의 행복도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예는 상속자의 경영 철학에 의해서 운영되는 진성식품이 싱글맘과 등록금을 못 내는 대학생 등 사회적 약자를 직원으로 우선 채용하고, 그들의 복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는 점에 잘 반영되어 있으며 이 드라마에서 상속자는 혈연을 뛰어넘어 사회적 약자들의 연대를 위해 노력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2012년 발표한 김희경의 연구는 농촌 여성 노인들의 “자기초월감”이 여성노인들의 성공적 노화를 설명하는 중요 요소라고 설명한 바 있다. 농촌 지역 여성들은 남성노인들에 비해서 훨씬 폭넓고 다양한 인간관계와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는 그들의 성공적 노화 요소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했는데 상속자 회장의 경우, 자본주의 철학이 난무하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폭넓고 다양한 인간관계와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자기초월감과 주체성에 기반한 성공적 노화를 성취한 인물로 그려져 있다. 더군다나 『찬란한 유산』의 성공적 노화 서사 전략 내에서 발견할 수 있는 독특한 점은 바로 상속자 여사의 이러한 “자기초월감”이 성공적 노화의 의미를 사회적인 공공 영역으로 확대하고 주체성의 의미를 확고하게 다지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가부장’ ‘자본주의’ ‘유교사회’에서 자수성가한 가모장 회장님으로서 상속자의 권력은 가족 구성원들과 종업원 모두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상속자 개인의 가치관과 사회적 영향력에 힘입어 세상을 크게 바꾸고 있는 중이다. 즉 이 작품에서 보여준 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와 주체성은 개인의 차원

을 넘어 공적 영역에서의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여성노인의 이미지를 이토록 긍정적으로 그려냈다는 점 자체가 매우 센세이셔널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토록 높은 시청률을 기록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이 드라마가 시청률 40%에 육박하는 인기를 모을 수 있었던 요인은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가 제시하는 새로운 삶의 해법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며 더군다나 여성노인이 그 해법에 유일무이한 주체로 등장했기 때문에 “착한 드라마”라는 애칭을 얻으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다.¹⁸⁾ 이젠 사회 구성원 모두를 돌보는 인간다운 어머니로서 우뚝 선 장숙자의 경영철학이 또 다시 돋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토록 보기 드문 “자기초월감”은 오히려 여성노인으로서 가장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장숙자 여사가 고은성에게 진성식품을 상속하겠다는 것은 손자인 선우 환(이승기 분)보다 자신의 경영철학을 더 잘 이어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이기 때문이다. 매사 종업원들의 관점에서 회사를 경영하는 장숙자 회장은 이 시대에 존경받아 마땅한 기업인인 동시에 가장 주체적인 여성 최고경영자이다. 지금까지 TV 드라마에 등장한 여성노인의 삶 중에서도 가장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

장숙자는 지금까지 방영된 TV 드라마 중에서 가장 주체적이고 ‘자기초월감’이 매우 강한 여성노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장숙자 회장은 드라마 내의 서사 전개 과정에서도 모든 등장인물들에게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로 그려져 있다. 드라마에서 전개되는 모든 이야기는 장숙자 회장에게서 파생되어 나간다. 장 회장은 고은성과 선우환 등 남녀 주인공의 사건 전개에도 결정적 키를 쥐고 있으므로 서사 전략의 측면에서도 작가의 세심한 배려가 돋보인다. 그렇지만 이토록 긍정적인 장숙자 여사 인물 내면의 변화 과정은 드라마 내에서 그리 자세하게 그려지지 않아 아쉬운 점이 있다.

트렌디 가족드라마에서 기업윤리까지 제시하는데도 어설프지가 않은

18) 당시 공식사이트에서 진행된 네티즌 평점 점수는 10점 만점에 9.51점을 기록하였다.

것은 소현경 작가의 탄탄한 대본과 반효정의 연기력 때문이다. 원래 간간한 이미지의 반효정에게 ‘장숙자’는 딱 맞는 배역이라고 평가받았다고 한다.¹⁹⁾ 장숙자라는 인물의 진정성을 통해 이 시대 필요한 기업윤리를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매우 긍정적인 여성노인 이미지를 심었다는 것은 이 드라마가 갖고 있는 또 다른 미덕이고 이는 우리나라 TV 드라마가 여성노인 재현의 관점에서 한 단계 발전했다는 뜻이다. 한 인터뷰에서 장숙자 역을 연기했던 배우 반효정에게 장숙자 여사 캐릭터와 이번 드라마에 대한 소감을 묻자 “혼탁한 현실에 확실한 가치관을 지닌 바람직한 장숙자가 있어 행복했다. 끝까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사원들에게 주식을 나눠주는 데 존경을 넘어 너무 감동받았다”면서 “이런 인물을 연기할 수 있을까 하기도 했다. 평생에 보기 힘든 감동스러운 작품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얼핏 보면 청춘드라마 같지만 이 시대 기업관과 윤리관을 심어준 드라마였다”는 말도 덧붙였다. 반효정 씨는 “처음에는 ‘그냥 할머니다. 오프닝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이 정도로 알고 배역을 수락했는데 진행되면서 내가 주인공이었다”면서 “점점 중압감으로 다가오면서 40년 연기에서 정말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연기에 임했다”고 말했다.²⁰⁾ 이와 같이 큰 기업을 직접 경영하는 경제적 주체 할머니 회장님의 이미지는 실제로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들을 보면 여성노인들에게는 남성노인과 달리 경제상태 변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보고가 많은데,²¹⁾ 이러한 이미지는 주목할 만한 것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자기초월감’을 사회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강력한 파워를 지닌 여성노인의 이미지를 사회문화적으로

19) 반효정은 2009년 <SBS 연기대상>에서 공로상을 받았는데 그 해 SBS에 출연한 바로 이 드라마의 장숙자 역할이 큰 영향을 미쳤다.

20) 서병기, 『반효정 “내가 장숙자가 아니라 부끄럽다”』, 『헤럴드 경제신문』, 2009. 7. 28.

21) 박기남, 『노년기 삶의 만족도와 성별 차이』, 『한국노년학』 24권 3호, 한국노년학연구회, 2004, 13~29쪽.

정순돌,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관한 인식 비교 연구』, 『한국노년학』 27권 4호, 한국노년학연구회, 2007, 829~845쪽.

전파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기회를 제공했다.

5. 「내 사랑 내 곁에」(2011): 주체성 없는 성공적 노화

2011년 5월 7일부터 10월 23일까지 총 50부작으로 방송된 김사경 극본의 「내 사랑 내 곁에」는 TNS 미디어 집계에 따르면 최고시청률(마지막주) 20.5%(수도권), 19.8%(전국)을 기록하면서 막을 내렸다. 이 드라마의 제작 의도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리틀 맘의 고군분투기를 그린 드라마”로 여고생인 도미솔(이소연 분)이 고3때 남자친구 고석빈(온주완 분)과의 사이에 임신을 하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공식 웹싸이트에 표기된 기획 의도는 10대 미혼모들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과 태도가 변화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부디 이 드라마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리틀맘들의 현실을 이해하고 리틀맘의 친구가, 이웃이, 부모가, 학교가, 사회가 그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그 소녀들이 다시 삶을 계획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표기되어 있다. 임신을 둘러싸고 두 어머니들의 상반된 태도 등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도 도미솔은 결국 꺾끗하게 아들 영웅을 낳아 어머니 봉선아(김미숙 분) 및 외삼촌과 함께 키운다. 그러나 미혼모인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어머니인 봉선아의 아들로 출생신고를 한다. 그 후 봉선아는 어릴 때 동네에서 알고 지냈던 고진국(최재성 분)을 다시 만나 사랑을 키우게 되는데 고진국은 현재 부인과 사별 후 장모님인 강여사(정혜선 분)가 경영하는 외식산업체에서 사장으로 일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인물은 바로 이 강여사인데 아쉽게도 강여사는 이 작품에서 큰 기업체를 손수 일군 회장님으로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작품 내내 자신의 분명한 이름이나 직책이 아니라 그저 강여사로만 호칭되며 직접 경영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작품의 전반부에서 강여사의 역할은 그리 크지 않았으나 중반부 이후에는 서사 전개상

그 역할이 점점 비중있게 그려진다. 이 드라마에서 강여사는 『찬란한 유산』의 장숙자 회장과 같은 비중을 갖지는 못하지만 스토리 전개 과정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스토리 내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중요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여성노인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이름이나 직책으로 호명되지 않고 ‘강여사’로만 설정한 것은 작가의 의식이 아직 여성노인에 대해서는 민감한 감수성을 갖고 있지 못함을 반영하는 것이다. 결국 사위인 고진국이 회사 경영을 모두 맡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동생인 고진택의 부인 배정자(이휘향 분)와 아들 고석빈은 이 회사를 자신들이 소유하기 위해 온갖 악행을 꾸민다.

이 드라마에서 강여사의 비극은 자신의 자궁가족을 갖지 못했다는 데서 비롯된다. 강여사의 유일한 혈육이었던 딸은 미국 유학시절 임신하여 귀국 후 아들을 낳았으나 그 아이가 태어나는 즉시 강여사가 고아원에 보냈다. 그리고 그 딸은 미혼모인 사실을 숨긴 채 고진국과 결혼하였으나 둘 사이에는 아이가 없고 강여사의 딸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그러므로 강여사는 그 때부터 오늘날까지 일생동안 죄의식을 안고 살아왔는데 자신이 암에 걸려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는 “내 팔자가 이렇게 기구한 거 보면 하늘이 내게 벌을 내리는 거다”라며 오열한다. 한편 강여사가 손주를 찾게 되면 아들 석빈의 자리가 위태로워질까 걱정하던 배정자가 자신의 유산을 노리고 온갖 악행을 꾸몄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는 오래전 고아원에 맡겼던 손주를 찾기로 결심한다. 또 강여사는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사위인 고진국이 봉선아와 재혼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앞으로 찾게 될 손주에게 건네주고자 봉선아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내민다. “고진국과 결혼은 하되 혼인신고는 하지 않겠다. 이후로도 진성기업 지분에 대해서는 어떤 권리도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질문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강여사는 큰 회사를 소유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회장님 이미지와는 달리 시청자들에게 연민의 정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죄의식에 사로잡혀 주체성은 없는 것처럼 설정되어 있으며 이 모든 사건들의

원인은 그녀가 자신의 핏줄로 이루어진 가족 구성원을 한 사람도 갖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그려져 있다.

앞에서 논의한 백지은, 최혜경의 연구(2005), 윤현숙, 유희정의 연구(2006), 또 김희경의 연구(2012) 등의 결과에서 이미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여성노인들의 성공적 노화를 가능하는 첫번째 요소가 자녀와의 관계라고 한다면 이 때 자녀는 기본적으로 여성노인 자신의 자궁가족만을 의미하는 것이다.²²⁾ 그러므로 이 드라마에서 보여주고 있는 강여사의 삶은 혈연관계를 중시하는 우리나라 가족주의의 어두운 면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일례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강여사는 딸의 아들인 손주 이소룡(이재운 분)을 찾아내고 고진국과 봉선아의 결혼, 이소룡과 도미술의 결혼으로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처리된다. 이 드라마가 제시했던 여성노인으로서 강여사의 삶은 사회경제적으로는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그 삶 자체로서는 주체적이거나 성공적 노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말하기 어렵다. 여성노인들에게는 가족이, 특히 자녀관계가 성공적 노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이 때 그 가족은 반드시 자신의 핏줄로 이루어진 자궁가족이어야 한다는 점을 또다시 강조한 작품이므로 여성주의 측면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다.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강여사와 그 딸이 경험했던 미혼모로서의 삶은 한국 가부장제의 모순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며 약 30여년에 걸쳐 죄의식을 안고 살았던 그 세월의 두께만큼 두 여성의 행복과 정서적 안녕감을 찾아볼 수 없는 삶이었다. 그러므로 여성노인의 관점에서만 보았을 때에는 비록 만족스럽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재 시점의 10대 미혼모를 둘러싼 도미술 가족의 경험과 과거 시점 강여사 딸의 미혼모로서의 아픈 경험을 두 세대 여성이 함께 공유하고 억압적인 세월을 살아왔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점에서는 작가의 여성주의적인 안목을 높이 평가할 만하다.²³⁾ 마침내 강여사는 손주인 이소룡과 함께 도미

22) 위의 연구들 중에서 자궁가족이 아닌 재혼이나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 자녀와의 관계를 따로 구별하여 진행했던 연구는 없다.

23) 우리나라에서 미혼모에 대한 사회인식을 개선하고 그들의 권리와 복지를 위한 여

술의 아들까지 받아들이고 또 고진국과 봉선아의 결혼 등으로 대가족을 이루고 행복한 노후를 맞게 된다. 그에 따라 이 작품의 해피엔딩 처리는 주말 가족드라마의 공식인 ‘대가족 복합서사’로 마무리 된다. 그러므로 이 드라마는 자궁가족을 갖지 못한 여성노인의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성공적 노화를 지향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의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6. 「무자식 상팔자」(2012): 다양한 주체성에 기반한 성공적 노화

김수현 작가의 JTBC 주말연속극 「무자식 상팔자」는 2012년 10월 27일부터 2013년 3월 17일까지 총 40부에 걸쳐 방송되었다. 애초에는 30부작으로 기획되었으나 시청자들의 높은 호응으로 10부를 연장 방송하였다. 이 드라마의 기획 의도는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는 우리네 부모들의 이야기이며 곧 부모가 될 자식들이 그 사랑을 배워가는 따뜻하면서도 가슴 찡한 한 가족의 이야기”로 설정되어있다.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가족의 최고 어른은 안호식(83세, 이순재 분)과 최금실(83세, 서우림 분)로 요즈음 보기 드물게 서울 외곽 지역에서 세 아들의 가족과 함께 이웃으로 살아가는 일상을 보여주는 드라마이다. 안호식은 아내와 함께 재래시장에서 40여년간 해장국집을 경영하였지만 65세에 고향으로 내려와 주유소를 경영하며 편안한 노년기를 보내고 있다. “자신이 쓸 돈은 스스

성운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8년 이후이다. 2007년 미국인 안과의사 리차드 보아스(Richard Boas) 박사가 사재를 털어 설립한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KUMSN: Korean Unwed Mothers Support Network)는 2008년 서울사무소 개소와 더불어 양육 미혼모들을 위한 권익옹호 및 사회적 편견 불식을 위해 노력해왔다. 2012년 4월 20일 이 단체는 한국 여성운동 단체로 전환하여 <사단법인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로 재발족하였으며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감춰져왔던 미혼모 이슈를 공론화하기 위하여 미혼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과 법률 지원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www.kumsn.org 참조할 것.

로 벌어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으며 80대인 오늘날에도 매일 일하는 경제적 주체로 근검절약 정신이 투철하다. 또한 40년째 이름없는 기부를 해오고 있다. 급하고 간간하고 훈계 잘하는 성격 탓에 주위 사람들을 긴장시키지만 젊은이 못지않은 패기와 자신감을 갖고 사는 당당한 노인이다. 그러나 최금실은 잔소리 많은 남편과 달리 말수도 별로 없고 자신의 의견을 좀체 드러내지 않으며 잔소리 많은 남편의 투정도 묵묵히 받아 넘기는 일명 “부처 할머니”이다. 그러나 소소한 일상생활에서는 가끔씩 남편에게 골탕을 먹이기도 하고 개성 강한 세 며느리와 손주들에게는 언제나 너그럽고 자애로운 할머니이다. 그러므로 누가 봐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성공적 노후”를 보내고 있지만 “주체적인 삶”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던 어느 날 안호식이 이웃에 사는 독신남 구교수를 챙기는 최금실에 대해서 타박하고 또 함께 외출 나갔다가 외간남자에게 눈길을 준다고 질투하던 안호식이 급기야 “젊을 때부터 있는 화냥기야”라고 심한 막말까지 하자 참다못한 최금실은 마침내 이내심이 폭발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별떡 일어나 말없이 가출을 위한 짐을 꾸리는데 이 때 이를 말리던 남편의 얼굴을 실수로 쳐버리고도 개의치 않고 그대로 방을 나와 버렸다. 최금실은 함께 사는 큰아들 안희재(60세, 유동근 분)와 며느리 이지애(59세, 김해숙 분)의 방으로 가 옷을 갈아입으면서도 차오른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다. 뒤따라와 무슨 일인지 묻는 지애에게 “말하기 싫어. 말 시키지 말어. 애들 내려오라 그래. 빨리!”라며 극의 전개상 처음으로 언성을 높였다. 이어 변호사 손녀 소영(36세, 엄지원 분)이 부름을 받고 달려오자 “나 니 할아버지하구 갈라선다. 니가 맡아서 이혼시켜 줘”라고 단호하게 이혼을 선언하며 억울하게 살았던 세월을 한탄했다. 이 부분은 드라마 서사 전개 과정에서 가장 긴장을 유발했던 장면이다.

그 후 1, 2층으로 나누어 “가정 내 이혼” 형태로 살아가는 안호식과 최금실에 대해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이들이 이혼할 경우 위자료에 대한 논의들을 분분하게 진행했다. 그러나 정작 안호식은 “재산, 니 엄마 침 흘

릴 만큼 있지도 않을뿐더러 재산 나눠줄 만큼 너 엄마 한 일이 없다”라고 큰 아들에게 전하고 이를 듣게 된 최금실은 “한 달 월급 백만원 씩 이 년이면 얼마야?”라고 자신 몫의 재산 10억을 철저히 계산해서 다시 희재를 아래층으로 내려 보냈다. 이 장면은 앞에서 논의한 심영희의 연구(2013)에서 “가정내 이혼형”으로 살아가는 여성노인들에 대한 연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최금실의 경우는 “개인화”의 결과라기보다는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할 사안이다. 이 에피소드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현재 다복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것처럼 보이는 여성노인들이 처한 현실의 좌표를 인식하게 해준 계기가 되었다.²⁴⁾ 다시 말하면 여전히 가부장적인 남성노인들과 함께 살고 있는 많은 여성노인들은 “하루라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소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해주었다. 그리고 여성노인들이 이혼할 경우 맞닥뜨리게 되는 위자료와 법적 지위 등에 대해서도 유익한 정보와 이혼 가능성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것이다.

극중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노부부의 신경전은 호식과 금실이 꼭 동행 참석해야 할 잔치 일정 덕분에 마무리될 수 있었다. 마음이 급했던 호식이 금실을 달래기 위해 돈을 내놓기로 마음먹었던 것이다. 금실은 비록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진 못했지만 ‘협상금’을 받아내면서 마침내 2층 생활을 접고 1층으로 짐을 옮기면서 화해를 종용하는 자식들의 성화에 합의하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양금이 채 가지지 않은 노부부의 “불편한 재결합”은 다른 가족들을 여전히 좌불안석하게 했다. 금실도 예전과는 달리 남편에게 당당하게 자신의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는 아내로 변신하였다. 그래서 2층에서 내려온 금실에게 호식이 “빨리 옷 입어. 늦게 생겼어”

24) 실제로 시청자게시판에는 이 에피소드에 대해서 “엄연한 인격체인데 아무도 할머니 말을 진지하게 안 듣는 듯하다”, “오히려 자식들마저 할머니를 달달 부는 느낌마저 들면서 할머니는 어디도 쉴 공간도 자유도 없이 보이는 게 답답하네요”라는 시청자 반응이 올라오기도 하였다. (박민영, 『자식들이 할머니를 좀 만만히 보는 듯』, 2013. 2. 10)

라고 재촉하자 “명령하지 말아요. 당신 쫄병 아니에요”라며 이전과 완연히 달라진 당당한 태도로 호식을 당황케 했다. 그러나 금실은 역시 자녀를 먼저 생각하는 어머니였다. 호식과의 싸움 끝에 얻어낸 협상금의 일부를 둘째 아들 희명(송승환)에게 몰래 쥐어준다. 대기업 상무직에서 명예 퇴직하고 집에서 소일하고 있는 희명을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부른 금실은 “봄 되면 나가 골프 쳐. 밥 신세 진 사람 빚두 갚구, 책두 사보구 그래”라며 봉투를 건넸다. 평소 아내 지유정(55세, 임예진 분)의 투철한 절약 압박에 마음껏 돈을 쓰지 못하는 아들이 안쓰러웠던 것이다. 팔순 노모가 되어서도 오십대 아들 앞에 여전한 대한민국 엄마의 깊은 모성애가 바로 현재 우리 사회 여성노인들의 일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무자식 상팔자』에는 매우 흥미로운 또 다른 여성노인이 등장한다. 최금실의 막내 아들 희규의 장모인 신영자(74세, 전양자 분)이다. 매사 심각한 일없이 화통한 성격인 그녀는 유도 삼단에 현재 기타학원도 다니는 멋쟁이 할머니이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후회는 없고 지금도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인물이다. 지금까지 TV 드라마에 등장한 여성노인들 중에서 가장 활발하고 적극적이며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물로 그려져 있다. 환갑 때까지 자신이 직접 한정식 집을 운영해서 경제력이 꽤 있는 편이지만 현재는 딸네 집에서 자발적으로 가사를 전담한다. 옛날 룬살롱에서 일할 때 만난 남자와의 사이에서 딸 새롬(49세, 견미리 분)을 낳아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미혼모의 길을 선택하였으며 지금까지 혼자 키웠다. 그 때문에 딸 새롬과는 사이가 좋지 못한 편이지만 최근 새롬의 아버지가 중병에 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딸에게 상속지분을 받게 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젊었을 때 자발적으로 미혼모의 삶을 선택한 신영자의 경우에도 자신의 노후를 의탁할 곳은 자신의 딸 새롬 외에는 없는 것처럼 그려지는 것이 아쉽다. 앞의 윤현숙, 유희정의 연구(2006)에서는 특별히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와 자녀와의 접촉빈도가 우리나라 노인들의 성공적 노화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는데 신영자의 경우는 아예 딸네 집

에서 자발적으로 부역을 맡아 함께 생활하므로써 자신의 노후 생활 만족도를 상승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단 역시 위 연구에서 설정한 성공적 노화 개념의 네 차원, “신체적 기능, 인지적 기능, 사회활동, 심리적 안녕감”이 모두 골고루 확보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김수현 작가가 신영자를 통하여 여성노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성공적 노화의 또다른 양상과 징후를 제시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즉 “관습 속의 변환” 서사를 시도해 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왜냐하면 현재와 같은 관습적인 서사 전개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여성노인의 노후는 혈연으로 형성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해결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것처럼 상상하고 또 그것만을 기대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7. 결론: 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와 주체성

그렇다면 TV 드라마 내에서 나이든 여성, 여성노인의 주체성을 찾아내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여성노인은 사회적 정체성을 갖고 있는 독립된 한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고 가족 내에서 수행해야 하는 어머니, 또는 할머니 등의 성역할로만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노인의 주체성은 그들의 가족 구성, 가족 내에서 수행해야 하는 성역할, 본인의 경제적 상황 등과 밀접한 역학관계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TV 드라마에 긍정적으로 묘사된 경우를 살펴보면 나이든 여성, 여성노인의 주체성 추구를 위한 필수조건이 바로 경제적 조건임을 알 수 있다.²⁵⁾ 또한 인격적 덕목으로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배려, 소통 능력,

25) 이 경우 모두 신체적, 인지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전제로 하며 그 외 필수조건은 경제적 조건이다. 『엄마가 뿔났다』(2008) 가족의 경제적 환경과 『찬란한 유산』(2009)에서 볼 수 있는 자수성가한 사업체 경영자로서의 경제적 능력이 바로 김한자와

삶에 대한 성찰 능력, 따뜻함과 엄격함을 동시에 구사하는 능력 등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2000년대 한국의 TV 드라마는 여성의 나이 들과 여성노인의 삶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고민이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²⁶⁾

TV 드라마의 주 시청자가 여성, 특히 중년 여성이나 여성노인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재현 내용이 여성 개인의 인식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2008년 이후 비록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여성노인을 주요 인물로, 또 그 변화과정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는 『엄마가 빨랐다』(2008)와 『찬란한 유산』(2009)과 같은 작품들이 모두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는 점은 매우 의미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2012년 방영된 『무자식 상팔자』에서 가족에게 충실했던 80대 할머니가 자신의 인권을 내세우며 황혼이혼을 제기한 사건과 자발적 미혼모로서 딸을 낳아 키우면서 일생동안 경제적, 심리적 측면에서 주체적으로 살아온 74세의 여성노인을 TV 드라마 서사 전략에 포함시킨 것은 우리 사회의 굳건한 가족 이데올로기 속에서도 틈새와 균열을 내는 여성노인들의 성공적 노화와 주체성을 보여준 일례라고 할 수 있다.

2008년 이후 주말 가족드라마 4편을 분석한 본 연구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사회 여성노인들의 성공적 노화와 관련된 주체성은 개인의 주체화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가족관계 지향적인 전통적 관점에 머무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점진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찬란한 유산』의 장숙자 회장처럼 단순한 ‘자기초월감’을 넘어서 공적 영역에서 사회적 책무까지 거뜬하게 실천해 낼 수 있는 혁신적인 여성노인 이미지 창조는 그

장숙자 사장이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필수조건이 된다.

26) 2010년 『미워도 다시 한번』에서 카리스마를 갖춘 대기업 여성 CEO 한명인 역할을 맡았던 최명길은 “할리우드나 미국 드라마도 40~60대 배우들이 주인공인 작품들이 많아요. 아네트 베닝, 줄리언 무어, 메릴 스트리프 등이 중심 이야기를 펼치잖아요. 우리는 딸 중심으로만 끌고 가는데,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라고 말했다. (서병기, 『중년女優들 ‘찬란한 컴백’ 의미』, 『헤럴드 경제신문』, 2010. 4. 1)

래서 더욱 의미있는 작업으로 다가온다. 이제 우리 사회의 여성노인에 대한 사회문화적 의식을 고양하고 이미지 창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실보다 한걸음 앞서나가는 상상력을 꿈꾸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중에게 가장 친숙한 TV 드라마를 통해서 성공적 노화 과정을 주체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여성노인들을 재현하는 것은 일상의 젠더정치학 관점에서 여성노인 개개인의 인식 변화뿐만 아니라 세대 갈등으로 인한 사회 통합적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드라마를 제작하는 제작진의 인식 변화가 요청된다. 가장 우선적으로 드라마 작가 자신이 어떠한 비전을 갖고 이야기와 서사발전 과정에서 어떠한 여성노인 상을 제시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주말 가족드라마 4편중에서 김수현 작가의 작품이 두 편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작가 자신이 여성노인이므로 자신의 삶에서 느끼는 소소한 차별들과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느낌과 문제점들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현재 드라마 집필을 주도하고 있는 많은 여성 작가들이 일상생활에서 여성노인에 대한 보다 민감한 의식을 갖고 작품을 구상할 때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주체적인 여성노인 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방송의 상업성과 대중성에 토대를 둔 TV 드라마의 서사는 사회적 변화에 민감하다. 따라서 동시대적 감성과 직관에 빠르게 반응하여 구체적인 서사 전략을 구사한다. 2008년 이후 여성노인의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100세 시대의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여성노인을 재현하는 TV 드라마의 서사 전략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또 앞으로 이러한 서사 전략의 변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그러한 서사 전략의 변화가 진정으로 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와 주체성을 위한 진전인가는 더 지켜 봐야 할 것 같다. 「엄마가 빨났다」와 「무자식 상팔자」와 같이 서사 전략에 있어서는 진전을 보였지만 그를 수용하는 시청자들의 반응은 정 반대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곽삼근의 연구

(200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 여성노인들의 의식은 이미 괄목할 만큼 변화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므로 TV 드라마 내에서 재현되는 여성노인들의 삶은 성공적 노화와 주체성의 양상을 끊임없이 다양한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후 시청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을 한 단계 고양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김사경 극본, 드라마 「내사랑 내곁에」, 2011.
 김수현 극본, 드라마 「무자식 상팔자」, 2012.
 김수현 극본, 드라마 「엄마가 빨났다」, 2008.
 소현경 극본, 드라마 「찬란한 유산」, 2009.

2. 논문

- 곽삼근, 박성희, 김은경, 「여성노인의 젠더 불평등 경험과 인식 전환에 대한 연구」, 『한국여성학』, 24권 4호, 한국여성학회, 2008, 141~174쪽.
 김선영, 「한국 가족의 현실: 생애주기에 따른 가족 이슈 - TV 드라마 “엄마가 빨났다”가 선택한 가족 이슈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5권 2호,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9, 161~192쪽.
 김소진, 「황혼이혼 여성노인들에 대한 생애사 연구」, 『한국노년학』, 29권 3호, 한국노년학연구회, 2009, 1087~1105쪽.
 김 원, 「저항권과 행복추구권마저 독점한 ‘엄마」, 『말』, 10월호, 2008, 180~183쪽.
 박기남, 「노년기 삶의 만족도와 성별 차이」, 『한국노년학』, 24권 3호, 한국노년학연구회, 2004, 13~29쪽.
 백지은, 최혜경, 「한국 노인들이 기대하는 성공적인 노화의 개념, 유형 및

- 예측 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권 3호, 한국가정관리학회, 2005, 1~16쪽.
- 심영희, 『개인화의 두 유형에 관한 연구: “가족 중심 생존 지향형”과 “황혼 및 가정 내 이혼형”을 중심으로』, 『사회와 이론』, 23집, 한국이론사회학회, 2013, 277~312쪽.
- 유진희, 『김수현 홈드라마의 장르문법과 젠더 이데올로기 - <엄마가 뿔났다>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11호, 한국콘텐츠학회, 2010, 102~112쪽.
- 윤현숙, 유희정, 『가족관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8호, 한국가족복지학회, 2006, 5~31쪽.
- 이수연, 『드라마를 통한 여성정책 발견: “엄마가 뿔났다”의 가사노동 가치 찾기』, 『젠더 리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겨울, 50~55쪽.
- 전경숙, 장민희, 정태연, 『한국사회 노년 후기 여성의 삶의 재평가와 자아통합』, 『한국노년학』, 33권 2호, 한국노년학연구회, 2013, 275~292쪽.
- 정순돌,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관한 인식 비교 연구』, 『한국노년학』, 27권 4호, 한국노년학연구회, 2007, 829~845쪽.
- 홍지아, 『TV 드라마를 통해 재현된 여성의 몸 담론』,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49호, 한국언론정보학회, 2010, 122~142쪽.
- J.W. Rowe & R.L. Kahn, “Successful Aging”, *Gerontologist*, Vol.37, 1997, 433~440.

Abstract

Elderly Women's Lives represented in TV Drama - From the Perspective of Successful Aging and Subjectivity -

So – Hee Lee

This paper explores the representation of elderly women's lives in TV dramas from the perspective of successful aging and subjectivity. Many pieces of research report that the successful aging of elderly Korean men and women has been strongly connected to their relationship with their children. If we just focus on elderly women's lives, they've usually been transformed into active and subjective, free from the gender stereotype. For this research, four TV dramas since 2008 are selected and analyzed; *Mama is angry* (2008), *The Magnificent Legacy* (2009), *My Love Beside* (2011), and *The Good Luck with No Children* (2012). From the perspective of successful aging and subjectivity, most of the elderly women's lives in these four TV dramas are related to the concept of successful aging in terms of economic security and the intimate relationship with their own children. However, the representations of their searching for subjectivity free from the gender role as housewives are varied.

In *Mama is angry* and *The Good Luck with No Children*, the main elderly women characters have tried to challenge the stereotypical gender role to achieve their liberated subjectivity, but they have not achieved it completely. In *Magnificent Legacy*, the remarkable elderly woman character is portrayed as the founder,

owner and president of a food company, achieving both successful aging and subjectivity. Furthermore, as the CEO, she sets a prominent example for ethical management. She seems to be a matriarchal figure with self-transcendentalism. In contrast, in *My Love Beside*, the elderly woman president appears to have achieved successful aging and subjectivity, but, in fact, she has not. She has had guilty feelings since she sent her daughter's son, born out of wedlock, into an orphanage. In the end, she finds her grandson and the story has a happy ending.

In short, for improving individual consciousness and the social perception of elderly women's much more successful aging and subjective lives, it is necessary to create desirable images of elderly women's lives and to show the diverse characters managing their enjoyable senior lives through TV drama because this is the most powerful medium in terms of social influence.

Key words: elderly women, successful aging, subjectivity, aging society, narrative strategy,
the intimate relationship with their own children, self-transcendentalism